

삼성전자 '희망 퇴직' 바람 광주공장까지 불어 닥치나

삼성전자가 희망퇴직 바람이 불면서 삼성광주전자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민들은 삼성전자가 최근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 가동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디지털미디어 총괄에서는 이미 퇴직자가 나오고 반도체, LCD, 정보통신 총괄, 생활가전사업부 등 다른 부문으로까지 희망퇴직이 확산할 것으로 알려지자 광주공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12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1999년 이후 실시 가동되고 있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에 생산인력이 적은 대신 연구개발·사무직 인원이

경쟁력 없는 사업 퇴출·구조조정 피치...지역민들 촉각

많은 디지털미디어(DM) 총괄 등을 포함해 회사 전체로 볼 때 최근 들어 매달 5~12명씩 희망퇴직 인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연간 희망퇴직 인력이 100~150명에 이른다. 앞서 올해 상반기 희망퇴직 인력은 60~70명이 발생했고, 이들은 주로 차장급 이상이었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3~5년 안에 경쟁력 없는 사업퇴출과 신수종 비즈니스 발굴 등을 위한 구조조정에 속

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반도체, LCD, 정보통신 총괄, 그리고 생활가전사업부 등 여러 부문까지 감안한다면 앞으로 희망퇴직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총괄의 경우 이달중 완료될 경영진단 결과에 맞춰 8~9월께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 인력이 적지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의 이런 발언에 대해 지역민들은 지난 3월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이 '생활가전은 한국에서 할

만한 사업이 아니다'고 언급한 사실과 연계시켜 광주공장을 둘러싸고 나온 '규모축소', '해외이전' 등을 언급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광주전자 관계자는 "광주공장은 현재 희망퇴직자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과거에도 밝혔듯이 생산라인을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위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광주전자는 지난 해말 현재 매출액 3조1천억원, 생산유발효과 9천600억원, 지방세 138억원 등 지역 경제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갖고 모범기업인을 시상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여경협 광주·전남지회 창립 8돌 됐어요”

DJ센터서 기념식...모범기업인 18명 시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가 1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8주년 기념식을 갖고, 18명의 모범기업인에 대한 시상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동철 국회의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양준호 광주지

방조달청장을 비롯해 정부 및 유관단체장, 여성단체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모범기업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장상=조애옥(한국에텍)·이숙희(그린정보시스템)·박추희(롯데리아)·박숙희(공인회계사) ▲전남도지사상=윤명희(가산종합건설)·최영자(세창해운)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상=김효연(삼성시스템)·류금숙(우수기전)·유점현(광일가구산업사)·이순희(씨티조경)·이영례(하이옥스) ▲광주지방조달청장상=유정숙(위너스엔지니어링)·고양옥(서광전기)·김예숙(연세건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상=이남희(백동농장)·김인숙(이미지스튜디오)·손안상(시루연)·윤순남(매일휴양관광).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어! 주식 5,000만원어치나 있었네”

광주 손모씨 '잠자는 주식찾기' 도움 받아 횡재

“어, 내 주식이 5천만원이 다 되네”

지난해 5월 말 광주에 사는 손모씨는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LG텔레콤 주식 3천801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 당시 시가로 따지면 4천800만원이 넘는 돈이다.

손씨는 오래전 LG텔레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주식이 무상증자 등을 통해 불어나 이처럼 큰 재산이 됐지만 퇴사후 깜박 잊고 있었다.

증권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이처럼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모르고 있는 주주들이 찾아간 '미수령 주식'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154명에 15만2천156주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7천800여명의 주주들이 6천100만주(시가 1천100억원 상당)의 잊어버린 주식을 찾았다.

미수령 주식을 발행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주주에게 수령해갈

것을 통보했으나 주주가 바뀌거나 주주가 사망하면서 주권을 찾지 못한 주식을 말한다.

예탁원은 지난해 3월부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미수령 주식 보유자의 실제 주소지로 수령안내문을 통지하고 있다.

예탁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과거 증시 초기 발행회사들이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나눠줬지만 주주들이 이를 몰라 찾아가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처음 10주 정도로 미미한 수를 받았지만 이후 증가 등을 거치며 주주수가 불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수령 주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미수령 주식을 찾아가세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찾으려면 주주가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갖고 예탁원 광주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표준화된 리콜 가이드라인 만든다

재경부 공청회 거쳐 확정

각 제품별로 소관 법령과 부처에 나뉘어 있는 리콜 관련 절차나 방법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또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과정에서 느끼는 제품군별 위험 정도를 측정해 수치로 나타내는 소비자안전제감지수도 발표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소비자원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리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올해 안에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리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는 산자부, 식품은 복지부나 식약청 등으로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 결합으로 인한 리콜시 절차나 방법 등을 담은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남수

“지역 우량 中企 상장 지원 힘쓰겠다”

신임 박영수 증권예탁원 광주지원장

“지역내 증권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예탁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증권시장 활성화에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영수(47) 증권예탁결제원 광주지원장은 이를 위해 광주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내 우량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증권시장에 많이 상장될 수 있도록 실무지원과 편의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원장은 이어 지역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증권박물관 견학 및 증권경제교실을 운영, 증권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이들이 미래의 자본시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 출신인 박 지원장은 1987년 증권예탁결제원에 입사해 조사개발부 등을 거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아차 임금협상 또 결렬

오늘 부분파업...경총 파업자제 호소

기아자동차의 2007년 6차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13일 주·야 6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사는 12일 광명 소하리 공장서 6차 협상을 가졌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사측은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비용절감 및 인력 전환배치 방안'에 동의하면 기본급 인상 등 사측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제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지난 9일 5차 분교섭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인력의 적절 한 전환배치 및 특근효율 증대 ▲회사의 정상회까지 학자금·병원비·장기근속자 해외여행비 지원, 체육대회 등 고비용 지출을 복지프로그램 중단 ▲노사발전실천추진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측의 제시안을 내놓았다.

한편 광주전남경총자총협회는 이날 기아자동차 노조에 파업자제를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지난달 반 FTA(자유무역협정) 파업에 이어 이달 들어 임금교섭 미진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면서 지역경제가 시련을 겪고 있다”며 “파업을 이익쟁취의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역 대다수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약전고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업만능주의 노동운동은 결국 노조나 근로자 자신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파업자제를 촉구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학자금 대출 지원

농협전남본부 9월 14일까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2007년도 2학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학생 및 복학생은 농협 홈페이지 (banking.nonghyup.com)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고, 신입생·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농협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학생의 경우 인터넷대출은 친권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하여 대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청구대출은 학생과 친권자가 농협을 방문해 대출약정을 하거나 친권자 동의가 불가(재학생 포함)한 경우 학생과 친·인척 또는 제3자를 연대책무자로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종태기자 jilee@

MODISH 가용가중추천으로 완성되는 현대적 생활

모디쉬필러리 夏夏夏 특가판매

30% OFF

모디쉬필러리 광주점 010-350-3001-2 | 금호메트로점 010-350-8774

OPEN

EVERY

여름 신상품

30~50% SALE